



국내 과학기술 정보 유통체계 확립한

조영화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과학기술 정보 유통 시스템 개척자

지난 2001년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과학기술 정보 유통 분야의 연구기관이다. 출범 1년 만에 공공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기관 중 경영성과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 정보 유통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에서도 이 기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KISTI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KISTI 에서는 유독 '독종', '불도저' 등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지난달 퇴임한 조영화 전 KISTI 원장이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성격 탓에 붙은 별명. '용장 밑에 약졸었다'는 고사는 조 전 원장과 KISTI 직원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글 양기석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조영화 전 원장의 추진력이 돋보인 사례 하나. 현재의 KISTI는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과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돼 설립됐다. 문화와 성격이 다른 양 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한 KISTI는 출범 초기 뒤숭숭했다. 노조도 들고 일어섰다. 어찌 보면 조직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인지만 많은 이들이 '통합' KISTI가 제 궤도에 올라서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취임 한 달 만에 노조를 설득했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ISTI의 성장 토대가 마련된 순간이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KISTI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직원 배치와 부서장의 임명 등을 직원 자율에 맡기는 부서단위의 책임운영제를 실시했다. 정부 출연기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인사 시스템이었던 터라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 경쟁과 조정이 이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도 나타났다. 공공기술연구회가 지난 2002년 실시한 공공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기관 평가에서 유수의 기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선 것. KISTI가 출범한 지 일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였다.

업무 추진력 못지않게 조 전 원장에게는 국내 과학기술 정보 유통의 산파역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조영화=과학기술 정보 유통'이라는 등식은 과학계에선 이미 낯설지 않은 표현이다. 실제로 그의 손을 거쳐 간 과학기술 정보 유통 분야의 프로젝트와 연구 성과물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조 전 원장 스스로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그는 KISTI 원장으로 재직 중에만 과학기술정보 포털 서비스 체계 구축,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 배급표준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정보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KISTI가 올해 본격적으로 구축에 들어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은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NTIS란 연구 성과·인력·기획·관리·평가·학술정보 등 과

학기술 R&D에 필요한 정보를 범부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정보유통 플랫폼. 이 시스템은 오는 2009년까지 총 1,2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0여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연구과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공을 돌린다. 그래서일까. 그가 구축한 국내 과학기술 정보 유통 인프라가 더욱 커졌고, 다음은 조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 올라섰습니까. 또 앞으로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국가 과학기술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 결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기반 인프라의 수준은 선진국 못지않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진국을 능가하기도 하지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정보 유통 부문이 발전한 선진국에서조차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정보 유통 부문의 역사가 짧다 보니 관련 콘텐츠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계가 확립되는데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내 과학기술과 IT가 발전하기 위해선 선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 정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각 기관간 상호 협력과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특정 기관이나 부처의 이익이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있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호 협력과 융합의 필요성은 올해부터 구축되는 NTIS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NTIS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NTIS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는 범정부적 과제입니다. 연간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NTIS 구축을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고, KISTI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NTIS 구축이 이뤄지면 국가 R&D 과제의 전 주기 즉, 기획·수행관리·성과 확산 등의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며 100여개가 넘는 정부 기관이 운영해온 연구과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돼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엠패스, NHN 등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KISTI의 다양한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포털에 의한 정보 확산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에 의한 정보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요 포털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차적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문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보 유통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정보가 전문사업자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리더십을 논할 때 KISTI 출범 초기 노조와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꼽습니다. 동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KISTI가 비교적 쉽게 제 궤도에 올라섰던 것은 제가 잘했다기보다 KISTI를 위한 노조나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

실 통합 당시 혈혈단신으로 노조와 맞서기도 했지만 저도, 노조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점이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됐고,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정부기관에서는 흔치 않은 인사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KISTI 출범 초기에 조직체계를 개편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는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윈윈이란 부서장인 팀장이 가장 효율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팀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팀원을 뽑은 팀장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간 팀원 모두가 책임지는 구조이지요. 팀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이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자 그 이후엔 제가 특별히 관여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분야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선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과학자 스스로 문호를 열어야 합니다. 즉 ‘열을 주고 백을 받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자 혼자만 연구 성과물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호를 연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윤리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과학기술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